

## 2021년 공기구 관련 노사합동 실태조사 결과

---

□ 조사기간 : 2021년 5월 10일(월) ~ 5월 14일(금)

□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

### ▶ OSP분야

1. 가스탐지기 보유수량 부족 및 불량사항에 관한 대처 방안
  - 불량수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점별 1대 예비품 확보 예정: ~'21.7월
2. 공기구 보유기준 대비 예비물량 부족 개선(Biz지원팀)
  - 예비물량 팀당 1대씩 보유하며, '21년 퇴직자 공기구를 예비로 운용
  - 퇴직자 없는 20개팀 중 예비물량 필요팀 별도 지급: ~'21.6월말
3. 맨홀위치탐지기 공급에 있어 신형/구형장비의 보급기준 마련
  - 신형과 구형 탐지기의 Spec를 현장에 공유, 선호도에 따라 신규 렌탈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: ~'21.6월
4. 맨홀 내 인공사다리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개선
  - 맨홀내 작업 시 차량에 보유중인 인공사다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함
  - 차량에 보유중인 인공사다리 노후로 교체 필요 시 수선비 활용 구매
5. 각 측정기의 주간 사용 시 화면 인식 어려움 개선
  - 우선조치로 측정기에 햇빛가리개 부착가능 여부 검토 후 추진: ~21.7월
6. 스마트장비 운용 관련 차량 내 인버터 출력문제 개선
  - 지역별 인버터 출력 개선필요 현장조사 후 추가장착 추진 : 21.6월~
7. 버킷차량 운용방법 교육 계획 확인
  - 버킷차량 운행 및 조작방법 동영상자료 현장공유 및 지원추진: '21.6월~
8. PC 전주의 개선과제 시행 전 반드시 조합 협의
  - PC전주는 신형콘크리트 전주 교체 위주로 진행 중에 있음: '21년 19천본 일부 신형전주 교체 불가에 PC전주 보강공법을 개발 현장 시범적용 중에 있으며 6월 중 전사 확산 예정임

## ▶ 네트워크분야

1. 현재 지급된 공구세트의 품목 조정, 절연제품으로 공급
  -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유 및 구매 기준 변경시행
2. 팀별 기준으로 공기구가 공급되어 무인국사 장애 시 대응 어려움
  - 측정기 렌탈 및 공기구 구매 프로세스 재공지 : 21.5월 중
3. 고압전원 공기구 공급기준은 팀단위가 아닌 고압전원설치 국사별로 변경
  - 공기구/측정기 보유 기준 및 구매 방법 개선: 21.5월 공지 예정
4. 고압절연장갑/안전모/장화 노후심각, 전파관리소 지적사항으로 개선 필요
  - 고압제품(7종)은 불량 시 배정 예산으로 구매 가능
  - 별도로 NW운영본부에서 매년 필요 수량을 조사하여 조치 예정
5. 절연저항 측정기는 각 사양별(디지털, 아날로그) 필요
  -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매 방법 공지: 21.5월 중
6. 광심선 대조기는 신형/구형이 현장여건에 따른 공급필요
  - 광심선대조기는 현재 Netis에서 모델별로 렌탈 신청  
(신형/구형 모델명 확인 후 선택) 가능
7. OTDR은 CM팀에 현장배치 했지만 운영팀에서 필요하여 추가 배치 필요
  - OTDR은 운영팀 근무하는 국사의 경우 광CA 고장 파악을 위해 전송실에 배치해서 운용 시행('21.4.12 운영팀 화상교육 실시, OSP품질팀)
8. 운영팀내 예산문제로 고가 렌탈을 단기간만 운용, 고가 소모품 예산부족
  - 현재 렌탈 기준(100만원 이상)은 전사 회계 지침에 따라 변경 불가,  
소모품은 운영팀 배정예산 부족 시 광역본부 센터에 신청하고, 광역본부 예산 부족 시 NW운영본부에서 적정성 검토 후 지원 예정임
9. 공용노트북 활용 시 10G 사양의 노트북이 없어 이의 조속한 보급 필요
  - 10G 사양의 노트북은 '19년 구)유선액세스운영센터 당 1 대씩 기 공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 추가 소요는 운영팀별 추가 렌탈하여 사용중임

▶ **공통분야**

1. 현재 안전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 이행이 되도록 대책 마련
  - 현장 안전점검/이행강화를 위한 시행 개선(지역 OSP담당 주관)
  - 현장 안전작업을 위한 안전용품 추가 공급
2. IoT 안전모 불량 사항 조치 요청(턱끈 연결 플라스틱, IoT 안전모 방전 등)
  - 8월 이후부터 턱끈 불량사항 개선 반영된 안전모 공급 예정
  - 방전 관련 개선사항 현 모델에서는 반영불가, 신모델 개발 시 스위치 추가 검토

/KT노동조합